

끝내줬다! 광주일고...9회말 투아웃 대역전극

역전·재역전 거듭 최고의 명승부
윤여운 끝내기타 서울고에 10-9승

제41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

“이보다 더 극적일 수 없다!”

광주제일고등학교가 3일 서울 동대문 야구장에서 열린 제41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9회말 투아웃에 윤여운의 끝내기 안타로 서울고에 10-9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올 시즌 첫 대회 우승기를 안았다. 이로써 광주제일고는 지난 2002년 이후 5년만에 정상에 올라 대통령배를 품에 안았고, 결승에 진출한 5차례 모두 우승하는 감각도 함께 맞췄다. 지난 2002년 결승에서 천안북일고를 13-2로 대파한 이후 5년만에 제9회, 제14회, 제17회에 이어 통산 5번째 대통령배 우승의 위업을 이뤘다.

숨기뻐던 순간들

- 1회 3:1
3회 3:4
5회 6:6
6회 7:6
7회 9:6
8회 9:8
9회 9:10

상대로 5회초 안치홍의 좌월 투런포를 포함 3점을 뽑아내 다시 6-4로 재역전 시켰다. 또 다시 추격전에 나선 광주제일고는 5회말 동점을 만들었으나, 6회 1점을 내줘 6-7로 다시 끌려갔다. 앞진대 맞선격으로 7회에 상대 안치홍에게 연타석 좌월포를 얻어맞은 데 이어 와일드 피칭까지 겹쳐 2점을 추가 실점했다. 그러나 '야구 명문' 광주제일고의 투혼은 위기에서 더욱 힘을 냈다. 광주제일고는 8회 허경민, 서건창의 연속안타와 윤여운, 김태형의 적시타를 묶어 2점을 따라붙은 후 윤영의 9회말을 맞았다. 8-9로 뒤진 광주제일고는 9회말 볼넷과 서울고 투수의 와일드피칭을 묶어 2사 3루를 만들었다. 다음타자 서건창은 몸에 맞는 볼.

결승전 담게 옆치락 뒤치락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손에 땀을 쥐는 명승부가 펼쳐졌다. 서울고가 먼저 1회 3점을 뽑으며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광주제일고는 곧바로 추격전을 펼쳤고, 3회엔 1사 1, 2루에서 조영선의 좌중간을 꿰뚫는 적시 2루타로 동점을 만든 뒤 김태형의 스윙즈 번트로 역전에 성공했다. 빨간 막대풍선을 든 동문들은 재학생들과 목이 쉬도록 '최강 광주일고'를 외쳤고, 선구배를 하나로 묶는 고교야구의 매력에 모처럼 흠뻑 빠져들었다. 하지만 서울고의 저력도 무서웠다. 서울고는 광주제일고 '에이스' 정찬현을

일드피칭을 묶어 2사 3루를 만들었다. 다음타자 서건창은 몸에 맞는 볼. 이때 무안타로 침묵하던 4번 이철우가 해결사로 나섰다. 이철우는 2루수 킨 살짜크를 적시타로 9-9, 극적인 동점을 만들었다. 계속된 2사 1, 2루에서 다음타자 조영선의 몸에 맞는 볼로 2사 만루가 됐고, 윤여운이 타석에 들어섰다. 윤여운은 볼카운트 2-2에서 좌외수 앞에 푹 떨어지는 끝내기 안타로 길고 긴 승부에 마침점을 찍었다. 최우수 선수상에 이날 선발로 나선 정찬현이 선정됐다. /서울=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우승, 바로 이 맛이야
광주제일고 선수들이 3일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제41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후 허세환 감독을 행렬로 치며 환호하고 있다. /서울=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일고 전국대회 통산 20번째 우승

광주제일고가 3일 끝난 제 41회 대통령배 우승으로 전국 대회 통산 20번째 우승의 금자탑을 세웠다. 광주제일고는 '야구명문'답게 매년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엔 지난 2005년 황금사자기 우승, 2006년 전국체전 우승 등의 성적을 냈

다. 지난 1923년 창단된 광주제일고 야구부는 1949년 제4회 청룡기 대회 우승 이후 1975년 제9회 대통령배를 우승하고 별다른 성적을 내지 못했으나, 80~90년대들어 전국 대회에서만 11개의 우승기를 휩쓸며 한국 야구의 명문고로 자리매김했다.

메이저리거 김병현 우승 격려금 재학생·동문 1천여명 열띤 응원

■이모저모

○광주제일고 출신 메이저리거 김병현(28·콜로라도 로키스)이 이날 오후 5시(현지시간 새벽 4시) 허세환 감독에게 국제전화로 걸어 "후배들이 대통령배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꼭 우승해 모교의 명예를 드높여 주길 바란다"는 격려의 말과 함께 한국 메이저리거 유광일씨를 경기장으로 보내 "후배들의 희식비에 보태"라며 훈훈한 후배사랑을 담은 격려금을 전달하기도. 허 감독은 "(김)병현이가 무뎌봐도 보이지만, 후배들에 대한 사랑은 남다르다"면서 "경기 시간에 맞춰 새벽 시간에 일어난 병현이의 정성이 팀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흐뭇해하기도. ○"응원을 위해 한나절을 달려왔습니다. 1천여명의 광주제일고 재학생들과 30여

명의 교사들은 결승 경기가 열린 이날 낮 1시 광주에서 고속버스 25대에 나눠 타고 대거 상경. 경기시작 1시간전 동대문야구장에 도착한 광주제일고 학생들은 외야 좌측 스탠드에서 붉은색 막대풍선을 흔들며 야구 명문고답게 일사분란한 응원을 펼쳐 눈길. 또 나훈(39회) 송정조합장을 비롯해 김동철(49회), 최재천, 이상경(이상 57회) 국회의원 등 동문 200여명도 광주에서 함께 상경, 열띤 응원전에 동참하기도. 한중관 광주제일고 교장은 "점점 사라져가는 단합심과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번 응원전을 기획했다"며 "재학생들의 응원전에,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선배 동문들이 참여, 모처럼 광주일고의 교가와 함께 힘찬 응원전을 펼쳤다"며 동문들의 모교 사랑에 감사의 말을 전달. /서울=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역전 일궈낸 타자들 자랑스러워”

MVP 정 찬 현 선수

“기분 끝내주세요. 너무 멋진 경기였잖아요.” 제41회 대통령배 최우수선수로 뽑힌 투수 정찬현(3년)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타자들이 너무 잘해줘서 큰 상을 받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주무기인 직구 위주로 던졌는데, 자주 맞아서 힘들었다”면서 “점수를 많이 내주긴 했지만, 경기내내 진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평균자책점 '0'을 기록한 정찬현은 그동안 피로가 쌓인 듯 결승전에선 7.2이닝동안 5탈삼진을 잡아냈으나, 2회엔 10안타를 얻어맞고 7실점(5자책점)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정찬현은 이번 대회에서 4경기에서 19.2이닝동안 20탈삼진을 슈아내며 11피안타 5자책점으로 3승을 챙겼다. 지난 2일 중앙고와의 준결승전에선 6이닝동안 삼진 6개를 슈아내며 무실점으로 막고 팀의 결승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선수들 정신력 싸움서 이겼다”

허 세 환 감독

“너무 힘든 싸움이었는데 5년만에 대통령배를 되찾아와 기쁨이 두배입니다” “고교야구 명장” 허세환(46)감독은 우승 인터뷰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거둬 너무 감격스럽다”며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허 감독은 “결승전담게 명승부였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투지가 우승을 이끌었다”면서 “경기전 선수들에게 '야구명문고'의 자부심을 강조했는데, 정신력 싸움에서 이긴 것 같다. 동문들의 열렬한 응원도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허 감독은 “대통령배 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주력하겠다”면서 “다음 전국대회인 청룡기 대회의 우승을 목표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고 올 시즌 포부를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손민한 징크스’ 깼다



홍세완 결승타...롯데에 4-1 승

정성호(KIA·30)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딱 하나다. 바로 '10년 연속 3할타자'다. 그런데 숨겨진 애칭이 또 하나 있다. '솔로우 스타터'다. 정성호는 지난 1998년부터 매년 3할 이상을 기록했지만 개막 첫 달인 4월에는 대부분 2할대를 맴돌았다.

하지만 5월에 들어서면 무서운 정도로 타격감이 되살아났다. 2004년에도 4월 타율은 0.263로 부진했으나 5월에는 0.333으로 끌어올렸고, 2005년 역시 4월엔 0.278, 5월엔 0.372를 기록했다. 지난해엔 4월 평균타율이 0.206으로 최악의 성적을 냈지만 5월에 0.

372리로 타격감이 살려졌고, 결국 9년 연속 3할타율을 달성했다. 2007시즌도 4월 타율은 0.213으로 신통치 않다. 하지만 정성호는 올 4월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정성호가 3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2007삼성PAVV 프로야구 롯데와의 경기에서 상대 선발 손민한에게 솔로포를 작렬, 4-1 승리를 이끌었다. 정성호는 0-0으로 팽팽히 맞선 4회 상대

손민한의 3구째 공을 밀어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로 힘의 균형을 깬다. 5회 1실점한 KIA는 1-1로 맞선 8회 1사 후 김원섭의 좌중간 2루타에 이은 홍세완의 적시타로 1점을 추가했고, 계속된 2사 만루서 손지환의 2타점 적시타로 2점을 더 달아냈다. KIA 선발 진민호는 6이닝동안 4안타 1실점으로 호투했으나 1-1로 동점이던 7회 신웅운에게 마운드와 함께 승리투수를 넘겼고, 한기주는 1.1이닝동안 탈삼진 2개를 잡아내며 8세이브를 올렸다. 이밖에 한화는 이범호의 만루포를 앞세워 삼성을 8-3으로 완파했고, 두산은 인천 문학구장에서 최준석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2-1 뒤집기승을 연출, 전날의 1점 차 패배를 설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